

<9월에드리는 말라위 선교편지>

- 말라위 상황



해가 갈수록 생활이 나아져야 하는데 말라위 상황은 더 피폐해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파준 우물의 핸들도 센터 옆 빌리지를 포함하여 다섯 군데를 뽑아 갔습니다. 물론 이 핸들이 200,000-300,000과차(옥수수4-5가마값)에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느 독일 NGO의 젊은이가 부통령과 인터뷰를 하는데 말라위의 모든 관공서 직원들은 돈달라고 하면서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온통 도로는 아스팔트 포장 공사로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막히고 황토먼지가 심합니다. 며칠전에도 정부를 향하여 운전기사들이 데모를 해서 외국인들은 조심하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특히 내년 9월에 대통령 선거인데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길 소망합니다.

- 제자훈련을 마치고



지난 7월에 시작한 평신도 제자훈련과 리더쉽 그리고 청소년 제자훈련이 이번주 10주차로 종강을 하였습니다. 무엇이 복음이고 어느 것이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 또 당신은 진정으로 행복한가 평신도 제자훈련 (유기성목사저) 교재를 가지고 복음외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과 주님과 친밀감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물론 본격적인 훈련은 11월에 시작됩니다.

또한 제자훈련을 수료한 졸업 학생들에게는 장학금과 일체의 문구 즉 노트와 연

필 그리고 볼펜, 책가방과 유니폼을 지원 해주었습니다.

글을 읽지도 못하는 청소년이 21명이나 되어 다음달부터는 문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평신도 아주머니와 아저씨들은 옥수수 가루 한가마씩 안겨 주었습니다.

때마침 어느 후원자님의 후원으로 사랑의 물결을 이루었습니다.

후원해주신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재봉학교



어느 덧 재봉학교 시작한지도 한달이 넘었습니다. 총 9대여서 1,2부로 나누어 총 18명이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매일 수업하기 전에 기도와 함께 말라위국가를 부름으로써 직업교육과 기술을 연마함으로써 조국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달을 배우고 나니 간단한 옷수선과 함께 재봉틀 덮개도 다 만들었습니다. 한번도 빠지지 않은 훈련생들에게는 아내선교사가 치텐제 옷감 한필씩과 세제 가루비누와 옥수수 가루 한 봉지 씩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면서 연습하는지 이 재봉학교를 오픈할 수 있도록 재봉틀을 후원해주신 전H대 장총장님과 캐나다 송사장님이 얼마나 흐뭇해 하실까 생각

도 해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활짝 웃으시는 모습도 연상됩니다. 거듭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 집짓기새마을 운동사역



저희가 집짓기 새마을 운동 사역을 시작한지 두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이제는 안정궤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저기에서 서로들 집 짓기 또는 집수리를 요청하였지만 저희가 집 짓기 사역을 시작하면 신청자는 사라져버리고 우리 식구들과 기술자만 덩그라니 남아 있을 때가 많아 어떻게 해야 할 지 당황스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새마을운동의 기본은 당사자인 내가 먼저 솔선수범도 하고 노력해야 하는데 당사자는 사라져버리고 없기에 또 당사자 남편이 있는 경우는 도와주어야 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없이 자취를 감춰 버리기에 도중에 중단을 시켰습니다.

새마을운동에 앞서 정말로 새마을운동이 더욱 필요한 말라위입니다.

이제 센터가 있는 차파타 빌리지에 열 채를 완공하여 기념촬영 및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이리 남중교회와 차권사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할 적마다 잊지 않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들의 기쁨과 감사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 또 차량건인

선교지에서는 세가지를 가지고 사탄의 역사가 심하다고 한다. 자동차와 비자문제와 동역자 관계라고 한다. 그런데 요즘 들어 차가 계속 문제가 생기고 있다. 그래

도 2008년형 차이면(16년) 신형은 아니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신형에 가깝다고 한다. 그런데 자동차 정비공이 손대고 다 고쳤다는 차가 컨테이너에 실린 짐을 싣고 오다가 갑자기 멈추었다. 그래도 다행히 센터 근처까지 왔으니 다행이다. 오늘 정비공 말에 의하면 4-5일은 고쳐야 한다고 하니 답답하다. 또 이렇게 해서 고친다고 한들 또 언제 문제생길지 모를 노릇이다. 지난번에도 거의 같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같은 순서를 밟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일로 인해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소서



- 아프고 지쳤을 때



잠시 자리를 비웠더니 센터에 있는 모든 설비가 망가지고 부서지고 영망이 되었습니다. 자동차도 망가지고 우물도 제대로 작동이 안되다 보니 나무에 물을 주는 것도 일일이 퍼 날라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심지어 새로 지은 유치원지붕도 문제가 생겨 지붕의 틈사이로 나뭇잎과 먼지가 수북하게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를 위해 후원해주신 분께 너무 미안하고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심신이 지치고 스트레스로 몸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너무 힘이 들어서 센터에 가지 않고 골방에 들어가서 성경 바울서신 13권을 단숨에 읽고 평소 좋아하는 좋으신 하나님 테힐라의 찬양을 들으며 하루종일 기도의 시간

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는 잠잠하라는 세미한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막혀 있던 문제들이 단숨에 해결되었습니다. 며칠 전 평소와 같이 새벽에 성경을 읽고 카톡을 열었더니 어느 후원자님께서 위로의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곳에서 집을 상당히 지을 수 있는 많은 후원금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기도하시는 데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마을 운동 사역의 일환으로 진행하고 있는 집 짓기 사역과 먹을 것으로 고통 당하는 분들을 위해 사용할 계획입니다.

샬롬

- 옥수수 나눔



생각지도 않았는데 서울에 있는 어느 로타리 클럽(서울서상지구)에서 식량지원에 필요한 후원금을 보내주셔서 150여명에게(식구포함 일천여명) 구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어느 분 표현에 의하면 은혜의 물결이라고 합니다. 마침 어느 집을 방문하였을 때에 그 집의 음식보관 항아리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 옥수수 가루를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지금부터 더욱 피폐해져 가고 있는 즈음에 더구나 다른 해에는 주변에서 굶어 죽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금년에는 아사의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리더인 로드릭 목사님이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식량지원프로젝트로 어느 로타리 회원님의 추천으로 연결되었다고 하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후원의 손길을 펼쳐 주신 분들에게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해주시길 소망합니다.

- 어느 현지인 친구의 죽음



제가 이곳에서 십여년을 살아 가면서 참으로 성실하고 착한 잼슨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가 자동차 샵을 운영하고 있어 실력도 좋고 수시로 저의 자동차도 고쳐주었습니다. 모든 말라위 현지인들은 선금을 주어야 하는데 이친구는 자기가 부품을 사다가 고쳐주어 수리비는 자동차 수령시에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잼슨이 갑자기 죽어서 장례까지 다 치루 었다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145,000과차의 자동차 수리비도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고 장례까지 치뤘지만 그 친구의 미망인을 찾아 아내와 리더인 로드릭목사님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수리비도 갖다 드리니 깜짝 놀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더욱 안타 까왔습니다. 항상 만나면서도 왜 그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지 후회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저자신을 책망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서 회개기도를 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조건 만나는 사람에게 주님이 기회주시는 데로 복음을 미루지 않고 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컴파운드(일종의 연립주택)의 경비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아내가 쌀 한 뒷박을 퍼서 선물로 주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부터 제 주변에 있는 그 누구에게 라도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년의 세가지 희망



제가 말라위로 온지 얼마 안되어 저희 미션필드 중 처음으로 주님께서 사역을 허락하신 빌리지에 랑기토니라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년이 사역을 할 때 마다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의 집을 방문하였더니 그의 어머니가 세가지 희망이 있는데 들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첫째는 열 서너 살이 되도록 학교 문턱을 넘지 못했으니 제발 학교를 다니게 해달라는 것과 제발 눈 검사 및 치료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껏 먹여 봤으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Blind School을 어렵게 알아보아서 지금까지 3-4년을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눈검사를 받기 위해 연세대 봄프로젝트 매니저에게 부탁하여 5명의 눈이 불편한 환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중 운이 좋게도 추장만 백내장 수술에 성공하여 지금은 눈에 불편함이 없지만 어느 분은 독사가 눈에다 독을 품어 새빨강게 독이 퍼졌는데 너무 오래되어 고칠수가 없었고, 랑기토니 소년은 2-3년만 빨리 병원에 왔어도 한쪽 눈은 건질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더구나 그의 다른 눈은 너무 튀어나와 고름이 나오고 있어 나중에 적출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말라위는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당시에 고름이 나오고 해서 약을 사서 먹였더니 많이 호전되었는데 지난 이주전에 눈이 너무 아프다고 해서 긴급으로 병원에 보냈습니다. 더구나 약값이 비싸서 옥수수 반가마 값이 나왔는데 그의 어머니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매학기마다 교통비와 다른 필요품을 채워서 살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제법 커서 신발도 맞지 않다고 해서 제가 신던 새신발을 주었더니 딱 맞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소원은 그 학교에서 제법 잘 먹이고 있기 때문에 키도 크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방학때 집에 올때마다 먹을 것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소년의 눈 적출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으로 편지를 보낼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을 위해 동역자 분들의 기도 부탁 드립니다.. 적출을 하지 않으면 평생 너무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기도제목>

9월의 기도제목

1. 7월부터 시작된 제자훈련이 어느덧 10주차로 종강을 맞게 되었습니다. 제자교육 즉 청소년제자훈련 및 목회자, 평신도제자훈련을 주님의 은혜와 사

랑으로 잘 마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8월 둘째 주 부터 시작된 직업훈련교육을 포기하지 않고 잘 수료하여 재봉교육을 통해 직업창출을 갖게 하옵소서
3. 새마을운동 집 짓기 사역을 차파다 마을을 위주로 10채를 잘 마무리하여 감사예배를 드리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머지 10채 분다 사역도 잘 진행되게 하옵소서
4. 제자교육 및 옥수수배달에 필요한 차량구입(픽업트럭)을 허락하옵소서.
5. 앞을 보지 못하는 랑기토니 소년의 눈적출 수술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6. 다소 심신이 지쳐 힘들었지만 모든 문제와 고장이 잘 해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라위 민경화/김홍희선교사드림